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의 물 이미지

김 명 렬

(영문과 조교수)

I.

Mark Schorer는 의미를 드러내는 수단이 기교요, 그 기교를 통해 “이루어진 내용(achieved content)”이 다름아닌 형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¹⁾ 소설가가 소설로 쓰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표현수단을 매개로 해서만 작품화될 수 있는 데, 언어를 포함한 이 모든 표현수단을 형식이라고 하면 형식은 내용을 담는 단순한 의미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내용을 내용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존재양식이 된다. 이 경우 내용은 독립된 추상적 사상이나 경험되지 않은 정서가 아니라 형식의 틀을 취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상이요 정서이기 때문에 형식화된 내용이 된다. 여기서 형식화라 함은 물론 규격화, 표준화됐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형식과의 결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미의 한정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현대소설의 형식에 대한 강조는 내용과 형식이라는 이분법적 발상에서 그 한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형식에 대한 동시적인 관심의 고조인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소설을 내용과 형식이 어우러져 빚어진 본격적 예술장르로 보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소설은 그 본래의 성질상 시나 희곡같이 밀도있게 압축된 형식은 못되지만 단순히 “읽을 거리”의 차원을 벗어나 섬미적인 대상이 된 것은 현대소설가들의 이같은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소설에서는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를 꺼리기 때문에 자연히 그것을 간접적인 표현수단에 의해 구현하게 되며, 따라서 독자도 세밀한 부분에 암시된 작자의 의도를 놓치지 않도록 요청받는다. Joyce와 같이 공교한 장인(匠人)의 작품에서는 더욱 그렇다. 예컨대 *Dubliners*의 단편들은 하나의 이미지나 상징을 놓치면 전체의 뜻을 놓칠 정도로 세부에 대한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작품들이다.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은 장편이기는 하지만 *Stephen Hero*라는 비교적 직설적이고 평이한 작품을 보다 세련된 기교로 개작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것도 단편에서와 같이 세부에 밀도있고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 읽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Portrait*는 명시적인 내용(manifest content)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보다는 이

1) Mark Schorer, "Technique as Discovery," in *Essays in Modern Literary Criticism*, ed. Ray B. West, J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1), pp.189-90 참조.

미지, 상징, 작가의 어조와 태도 등으로 말해 주는 부분이 더 큰 작품이다. 예컨대 Stephen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아이로닉하다고 보면 그렇지 않게 보는 해석과는 전혀 반대 뜻의 해석이 결과할 뿐 아니라, 주요 사건들도 액면 그대로의 사실보다 훨씬 깊고 풍부한 의미를 띠게 된다. 또한 장미상징 하나만으로도 Stephen에 있어서 신성한 사랑과 세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심도있게 추적할 수 있으며, 타락과 저주의 모티프에 초점을 맞추어 봄으로써 소설에 새로운 의미차원을 더할 수 있다.²⁾

Joyce가 실제로 이같은 이미지, 상징, 모티프 등을 얼마나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첫 section을 봄으로써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린아이의 문체로 어린아이가 느낀 최초의 경험들을 특별한 의도가 없이 나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Hugh Kenner도 지적하고 있듯이 오관의 작용을 차례로 기술하고 있을 정도의 계획성을 보여준다.³⁾ 이와 같은 의장(意匠)은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 더 분명히 나타난다. 예컨대 Stephen이 벗어나려고 하는 가정과 종교와 국가라는 세 가지 구속이 부모와, Eileen과의 관계와 Parnell, Davitt에 관한 언급 등으로 예시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편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장미, 녹색, 정벌 등의 이미지나 모티프들도 여기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이 치밀한 계획하에 쓰여진 것을 감안하면, 첫 section뿐만 아니라 전편에 걸쳐 끝까지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물 이미지는 마땅히 우리의 각별한 주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Stephen에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것의 의미를 밝혀보는 것은 그의 정신적 발전과정에 새로운 조명을 가한다는 뜻에서도 의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

앞서 본 바와 같이 첫 section의 예시적 성격을 감안할 때 첫 section에 나오는 “When you wet the bed first it is warm then it gets cold.” (p.7)⁴⁾의 물 이미지는 그 중요성과 더불어 여러 가지의 발전 가능성을 예감하게 한다. 실제로 이 간단한 문장 안에는 앞으로 전

2) 전자는 Barbara Seward, “The Artist and the Rose,” in *Joyce's Portrait: Criticisms and Critiques*, ed. Thomas E. Connolly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62), pp.167-82 참조. 후자는 Caroline Gordon, “Some Readings and Misreadings,” in *Joyce's Portrait*, pp. 136-55 참조.

3) Hugh Kenner, “The Portrait in Perspective,” in *James Joyce: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d. Morris Beja (London: Macmillan, 1973), pp.126-28 참조.

4) 인용된 본문과 편수는 James Joyc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Viking Compass Edition, corrected by Chester G. Anderson and edited by Richard Ellma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4)에 의거한 것임.

개될 여러가지 의미가 교묘히 내포돼 있지만, 우선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만을 보면 그것은 차고 더울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불쾌하고 유쾌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다. 실은 이점은 앞으로 있을 Stephen의 물에 대한 느낌의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물 이미지가 첫 section에서 이처럼 예시적이고 상징적이라면 두번째 section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띠기 시작한다. 이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진 물 이미지는 Stephen이 Wells에 밀려 빠진 하수도랑(square ditch)의 물에 대한 묘사에 나타난다. "How cold and slimy the water had been! A fellow had once seen a big rat jump into the scum." (p.10) 라는 말을 두군데서나 되뇌이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물은 이 부분에서 Stephen에게는 차고, 불쾌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느껴진다. 이런 물의 의미를 밝히는 데는 바로 그 다음에 Stephen이 회상하는 내용이 단서가 된다.

"Mother was sitting at the fire with Dante waiting for Brigid to bring in the tea. She had her feet on the fender and her jewelly slippers were so hot and they had such a lovely warm smell!" (Ibid.)

더운 차, 기분좋은 단내, 벽난로 앞의 평온한 휴식 등은 어머니로 대표되는 보호된 가정생활의 상징들이다. Wells로부터 당한 곤욕에 이어 집생각을 하는 것은 일견 비약 같으나 Stephen의 심경을 생각해보면 그같은 심리적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Clongowes의 생활은 Stephen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 하는 단체생활이다.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그에게는 그것만도 시련인 터에 Wells의 폼박은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퇴행 심리를 그에게 일으키기에 족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물은 그가 도피하고자 하는 고통스런 현실, 즉 Clongowes로 대표되는 바깥 세상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⁵⁾ 이밖에도 험겨운 운동경기에서 오는 낙오감, rival과의 경쟁에서 패배했을 때의 굴욕감, Dolan 신부에게 무고히 손바닥을 맞았을 때의 모욕감과 울분 등으로 이어지는 고통스런 Clongowes 생활에 대한 그의 느낌이 한결같이 "cold," "damp," "slimy," "wet" 등 물에 관한 불쾌한 뜻의 형용사로 반영돼 있음은 위에 든 물의 상징적 의미를 확인해 준다.

그러나 물이 상징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본래 그것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데다가, Stephen이 성장해 감에 따라 그것의 의미의 폭이 확장되 가기 때문이다. Clongowes 시절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물의 또 한가지의 의미는 성적(性的)인 것이다. 실은 이점도 최초의 물이미지에 암시되어 있다. 처음에 든 인용문에서 배뇨기관과 성기관이 같다는 것과 배설의 쾌감과 성적인 쾌감의 유사성 등은 암암리에 물과 성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다.

5) Tindall은 여기서 물이 모성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는 데 이것은 문맥을 무시하고 물의 원형적인 의미에만 집착한 오독으로 생각됨. William York Tindall, *The Literary Symbol*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7), p.83 참조.

이무렵의 성적인 암시는 여러 군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어느 학생이 Simon Moonan에게 “You are McGlade’s suck.”이라고 편주하는 것을 듣고 Wicklow Hotel에서 세면기의 물이 “suck”소리를 내며 빠지던 일을 Stephen이 생각하는 대목도 물과 성을 연관시키고 있다. “suck”라는 말은 성교의 뜻을 가진 비슷한 음의 비어(卑語)를 연상시킬 뿐 아니라 같은 대목에서 수도꼭지의 뜻으로 쓰인 “cock” 역시 비어로서 남근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Stephen이 알고 있는 성에 관한 어휘와 동시에 그의 성에 관한 관심의 정도로 짐작하게 된다.

또 물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Stephen이 양호실에 가서 Athy라는 학생과 갖는 대화도 성적인 암시를 주는 부분이다. Athy가 자기 이름이 a thigh와 음이 같다 하며 그에 관한 우스개 소리를 하는 것도 이 소년들이 갖고 있는 성적인 호기심을 암시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가 Stephen에게 말해주지 않는 또 다른 우스개 소리는 보다 노골적인 성적 표현일 것이라는 추측을 갖게 한다.

그러다가 성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Simon Moonan과 Tusker Boyle 등이 변소에서 동성간의 성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대목에서이다. Simon은 방금 전에 Stephen으로 하여금 “suck”라는 말을 생각하게 한 장본인이고, Simon의 사건을 여러 아이들에게 귀띔해 주는 아이가 바로 Athy라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두 부분의 성적인 암시성을 더욱 확실하게 준다. 이 때에 성에 대한 Stephen의 반응이 물 이미지를 통해 나타난다. 그 또래의 아이들이 대개 그리하듯이 성에 대해서는 몇 개의 비어나 알고 있는 정도의 Stephen으로서는 상급생들의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하필 변소에서 그런짓을 했을까 의아해 하면서 물이 질척질척한 변소를 떠올린다.

But why in the square? You went there when you wanted to do something. It was all thick slabs of slate and water trickled all day out of tiny pinholes and there was a queer smell of stale water there. And behind the door of one of the closets there was a drawing in red pencil of a bearded man in a Roman dress with a brick in each hand and underneath was the name of the drawing:

Balbus was building a wall. (p. 43)

여기서 square는 변소를 뜻하지만, 이 말은 Wells와의 다툼에서 Stephen이 넘어져 빠졌던 square ditch와 그 더러운 물을 상기시킨다. 또 배설작용을 연상시키는 작은 구멍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며 그것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등도 불쾌감을 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이미지를 통해 보면 Stephen은 성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혐오감을 갖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사실은 이때도 Stephen이 성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거나 덮어놓고 부정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Simon Moonan과 Tusker Boyle 등의 사건에 관해 생각하는 도중 그가 갑자기 Eileen과의 옛일을 회상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녀가 그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의 손을 만지면서 호주머니는 묘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강한 성적인 암시성을 가지며, 또한 그녀의 차고 가늘고 부드러운 손가락의 감촉에 대한 Stephen 자신의 회상도 상당히 육감적인 것이다. 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팔팔대며 뛰어 달아나던 그녀의 행동은 전형적인 유혹하는 여자의 교태로서, 이후로도 그 모습은 그가 여성에게 성적인 충동을 느낄때면 자주 상기하는 모습으로 남는다. 적어도 성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회상을 한 것은 그가 이성(異性)에 대해 성적으로 눈 뜨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그의 생각 또한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는 Eileen을 유혹적인 여성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성처녀("Tower of Ivory" "House of Gold" 등)로도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여성과 성을 초월한 이상화된 여성에 대한 욕망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것이 아직 분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면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상 몇 개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물은 Stephen에게 이제 혐오스런 바깥 세상 뿐만 아니라 성 내지는 구체적인 여성에 대한 욕망까지도 포함하는 폭 넓은 뜻을 함축하게 된다. 이같은 물의 의미는 2장에서 Stephen이 Dublin 부둣가를 돌아다니던 즈음에는 더욱 확장된다.

He passed unchallenged among the docks and along the quays wondering at the multitude of corks that lay bobbing on the surface of the water in a thick yellow scum, at the crowds of quay porters and the rumbling carts and the ill-dressed bearded policeman. (p. 66)

우선 우리는 물자체가 종전의 도량물이나 변소의 작은 구멍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아니라 광활하고 도도한 큰물이라는 것과, 아직도 "a thick yellow scum"이라는 말로 오예감이 나타나 있으나 전반적으로 진과 같은 강한 혐오감은 약화된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그것이 바다로 바뀐 것은 이제 그것은 피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의 것임을 암시한다. 더구나 Stephen이 부두에서 느끼는 "생의 거대하고 신비한 힘"(the vastness and strangeness of life p. 66)이 다름아닌 바다의 힘임을 생각하면 바다로 표상된 물은 결국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생성해 내는 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의미를 함축하는 바다를 Stephen이 이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왔다는 사실과, 바다를 표현하는 데에 "cold" "dark" "slimy" 등의 형용사가 사라진 것 등은 생에 대한 그의 태도가 회피적이고 거부적인 것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Stephen은 이제 그의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힘을 주체 못해 Dublin 부둣가를 방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를 부둣가로 내모는 생명의 힘이 구체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Stephen이 마음 속에 그리는 여성은 『몬테 크리스토 백작』의 인물인 Mercedes이지만 그녀가 가공의 인물이라고 해서 Stephen의 행동의 동기에서 성적인 면을 배제할 수는 없다. 2장의 끝에 가서 명백해지듯이 그의 가슴 속에 솟구치는 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생명력의 정체는 여성에 대한 육체적, 성적 욕구요, 따라서 Mercedes를 찾는

것도 일차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성적인 욕구의 발로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 Stephen은 Mercedes를 그녀의 이름이 암시하듯이 성녀(聖女)로 보는 것이다. 이점은 그녀에 대한 그의 바람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He wanted to meet in the real world the unsubstantial image which his soul so constantly beheld. He did not know where to seek it or how: but a premonition which led him on told him that this image would, without any overt act of his, encounter him. They would meet quietly as if they had known each other and had made their tryst, perhaps at one of the gates or in some more secret place. They would be alone, surrounded by darkness and silence: and in that moment of supreme tenderness he would be transfigured. He would fade into something impalpable under her eyes and then in a moment, he would be transfigured. Weakness and timidity and inexperience would fall from him in that magic moment. (p.65)

이들의 만남은 연인들의 밀회처럼 기술되고 있지만 거기에 아무런 육체적인 교섭이 없다. 그것은 서로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신비한 힘의 중재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섭이며 그것에서 그가 원하는 것도 현재의 불완전성을 벗겨 줄 수 있는 신비한 변신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Stephen은 성녀를 통한 구원을 바라는 것이다.

이같은 심리적 갈등은 상상의 여성에 대해서 보다 현실의 여성인 Emma Clery에 대해서 더욱 심각해진다. 파티 후에 그와 마차를 타고 돌아올 때 고깔(cowl)을 쓴 것 같은 Emma의 모습은 수도사나 성녀를 연상시킨다. Belvedere에서 그가 출연할 연극을 보러 Emma가 왔음을 친구들로부터 듣고 그가 마음 속으로 그려보는 그녀의 모습도 역시 솔을 고깔(cowl) 같이 쓴 모습이다. 특히 3장에서 자기의 부정한 죄에 절망하면서 Emma가 그의 구원을 위해 그와 성처녀 사이를 중재해 주기를 바라는 대목에서의 Emma는 의심할 바 없이 성스러운 여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ephen은 실제로 Emma에게서 강한 성적인 도발을 느끼며 그래서 Emma는 유혹하는 여자(temptress)의 모습으로 비치기도 한다. 마차 속의 장면에서 그녀가 Stephen에게 Eileen을 회상시킨 것은 그녀의 행동이 Eileen의 유혹적인 행동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만나기를 고대했던 Emma가 연극을 보러 왔는 데도 끝나고 나서 그녀를 만나지 않고 혼자 거리를 방황한 것은 그녀에게서 “유혹의 눈빛(alluring eyes p. 85)을 보고 그것에 끌리는 자신이 혐오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Stephen이 이러한 갈등으로 고민하는 동안 그의 성적인 충동은 계속 물 이미지로 반영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마차 안에서 Emma의 행동과 그에 대한 Stephen의 느낌을 묘사한 부분을 들 수 있다.

She came up to his step many times and went down to hers again between their phrases and once or twice stood close beside him for some moments on the upper step, forgetting to go down, and then went down. His heart danced upon her movements like a cork upon a tide. (p.69)

이밖에도 종일 Emma를 그리워 한 마음을 “and all day the stream of gloomy tenderness within him had started forth and returned upon itself in dark courses and eddies...” (p. 77)로 표현한 부분이나, 자신의 손가락을 손바닥에 가만히 대면서 Emma의 손의 감촉을 회상할 때 “and suddenly the memory of their touch traversed his brain and body like an invisible warm wave.” (p. 83)라고 한데서도 물 이미지는 빈번히 성적인 충동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Stephen의 성적인 충동이 물 이미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그 충동이 단순한 개인 차원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단서가 된다. 물은 바다와 연관되고 바다는 다시 생명일반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들 중에서도 특히 “a cork on a tide”는 코르크가 떠 있던 Dublin 부둣가의 바다를 상기시키며, 따라서 그가 느끼고 있는 충동이 그 바닷물이 함축했던 신비하고 거대한 생명에 뿌리박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보면 Stephen의 마음 속에 일고 있는 갈등은 종교적 계율 및 정신 위주의 가치관에 대한 자연스런 생명력의 반발로 환원된다. 그렇다면, 그의 성적 충동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힘이 그에게서 왕성해 질수록 그같은 도전을 더욱 거세지고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한 억제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그같은 경향은 갈수록 심각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2장의 끝부분에서 “그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끔찍하게 사악한 것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나운 욕망이 그의 마음 속에 들끓을 때는 아무것도 성스러운 것이 없었다”(Beside the savage desire within him to realise the enormities which he brooded on nothing was sacred. pp. 98-99)라는 대목을 만나게 된다. 그가 사창가를 찾아 가는 것은 위의 두 세력 중에서 후자가 승세를 차지한 것을 말해 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물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He wandered up and down the dark slimy streets peering into the gloom of lanes and doorways, listening eagerly for any sound. He moaned to himself like some baffled prowling beast. He wanted to sin with another of his kind, to force another being to sin with him and to exult with her in sin. He felt some dark presence moving irresistibly upon him from the darkness, a presence subtle and murmurous as a flood filling him wholly with itself. Its murmur besieged his ears like the murmur of some multitude in sleep; its subtle streams penetrated his being. His hands clenched convulsively and his teeth set together as he suffered the agony of its penetration. He stretched out his arms in the street to hold fast the frail swooning form that eluded him and incited him: and the cry that he had strangled for so long in his throat issued from his lips. It broke from him like a wail of despair from a hell of sufferers and died in a wail of furious entreaty, a cry for an iniquitous abandonment, a cry which was but the echo of an obscene scrawl which he had read on the oozing wall of a urinal. (p. 99-100)

“dark” “slimy” 등의 형용사와, 마지막 부분에 Clongowes 변소의 묘사 등은 Stephen의 불쾌감과 혐오감을 반영함에 틀림없다. 그의 교육 및 성장 배경을 고려해보면 그가 자신의 행동에 커다란 죄의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같은 부정적인 느낌은 그 죄의식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Lawrence의 “dark god”을 연상시키는 “dark presence”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a flood filling him wholly with itself”나 “moving irresistibly upon him” 등의 표현이 암시하듯이 그것은 바다같이 거대하고 신비한 생명의 힘인 것이다. Stephen의 성적 충동이 자연의 생명력의 발현임이 이처럼 이미지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Stephen의 이 성격형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 하나는 외부의 억압과 간섭으로 부터의 해방이라는 측면이다. 이같은 노력은 꽤 일찍부터 나타난다. Stephen은 원래 순종적인 모범생이었다. 그는 Conmee 교장에게 Dolan 신부의 부당한 벌을 항의하고 나서도 Dolan 신부에게 오만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또 Belvedere에서 동료 학생들이 늘 다름질할 때도 “조용히 순종하는 그의 습관”(his habits of quiet obedience p. 83)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2장에서 그에게 자의식이 생기면서부터 그는 순종을 강요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보이기 시작한다. 최고의 시인은 Tennyson이 아니라 Byron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그것을 취소하라는 급우들의 폭행에 굴하지 않은 것은 이런 저항 정신을 나타내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같은 저항은 구체적으로 가정과 종교로 부터의 이탈로 나타난다. 가정으로 부터의 이탈은 그가 아버지에게 대한 존경을 잃음으로써 시작된다. 그런 징후는 연극공연에 아버지가 온 것을 친구들이 알릴때 그들이 아버지에게 관해 무슨 말을 할까하고 불안해하는 데에서, 또 아버지와 Cork에 갔을 때 그가 아버지에게 보이는 냉담에서, 역역히 드러난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가족과의 거리감은, 논문의 상금으로 집안에 활력을 불어 넣어려던 허망한 기도가 실패한 후, 더욱 심화되어 결국 Stephen은 그들과 사실상 친족관계를 잃고 만다.

종교에서의 이탈은 2장의 처음 그가 uncle Charles와 함께 교회에서 기도를 드릴때, 그가 uncle Charles와 신심은 달리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가 Belvedere의 상급생이 됐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카톨릭신자가 되라는 아버지와 선생님들의 말이 “공허한 소리”(hollow-sounding voice p. 84)로 들릴 정도가 된다.

권위와 간섭에 대한 Stephen의 이같은 저항은 사춘기에 흔히 있는 막연한 불만의 표시가 아니다. 가령 가정에 대한 거부도, 기울어가는 가운데 무관심한 것은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집안의 몰락에 자기의 세계를 함께 함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교육책인 것이다. 또 종교에 대한 반항도 그것이 방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한 모색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저항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개척해 나가려는 자에게는 당연한 권리의 주장이요, 자유의 선언인 것이다.

Stephen의 성격형도 이런 맥락으로 보면 자기해방을 위한 몸부림이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색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해방의 눈물”(tears of joy and relief p. 101)을 흘리고 “수세기의 잠에서 깨어나”(awakened from a slumber of centuries

p. 100)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Stephen의 성경험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그것이 진실의 확인이라는 점이다. 이 소설은 Stephen이 인생과 예술에 대한 몇 개의 진실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엮여져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여러 진실들이 하나의 환영 안에 혼효되어 나타나며, 그것들을 확인하려는 Stephen의 노력은 그 환영을 잡으려는 추구로 나타난다. 이 환영은 특히 그가 지향하는 바 예술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으므로 예술에 대한 그의 의식이 싹틀 무렵에서부터 이런 모티프(motif)를 더듬어 보지 않을 수 없다.

2장에 접어들면서 Stephen의 정신적인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감을 갖게 된 사실이다.

Words which he did not understand he said over and over to himself till he had learned them by heart: and through them he had glimpses of the real world about him. The hour when he too would take part in the life of that world seemed drawing near and in secret he began to make ready for the great part which he felt awaited him the nature of which he only dimly apprehended. (p. 62)

말에 대한 유별난 관심, 또 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려는 태도 등으로 그는 이때서부터 시인의 기질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은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운명이 확실히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듯이 예감되고 있을 뿐이다. 이 무렵에 그가 접하기 시작한 낭만적 문학은 그로 하여금 여성에 대하여 낭만적인 동경을 갖게 하였고 이 여성에 대한 동경과 예술에 대한 열망은 신비한 여성의 환영으로 융합되어 버린다. 이리하여 Stephen에 있어서 여성과 예술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Stephen은 이 소설에서 두 개의 시를 쓰는데 그것들이 모두 Emma Clery에게 쓰여진 것이라는 사실은 적어도 초기에 있어서는 여성이 그의 시적 영감의 원천이요, 시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렇게 볼 때 Stephen이 좇는 환영은 최소한 삼중의 의미를 갖는다. 가령 그가 처음 추구하는 환영인 Mercedes의 경우에서도, 그녀에 대한 표현중 “언제나 그의 영혼의 눈앞에 보이는 잡을 수 없는 모습”(the unsubstantial image which his soul so constantly beheld p. 65)라는 말에는 여성에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욕구도 섞여 있는 것이다. 그의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여인은 다름아닌 4장의 물 속을 걷는 소녀임으로 Mercedes는 그 소녀의 초기 형상이 되며, 그러므로 그녀에게도 Stephen의 예술에 대한 염원이 투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Stephen은 Mercedes에게 성적인 욕망과 성녀에 대한 경배심을 함께 갖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그녀는 서로 다른 이 세 가지 욕구를 함께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언급되는, 그가 추구하는 바 “잡을 수 없는 환영”(intangible phantoms p. 84)도 그것이 Emma의 출현에 곧 이어진 생각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사모하는

여인(역시 성녀로서 또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환영이지만, 그것의 추구를 위해 가족과 종교와 나라를 포기하겠다는 조짐을 벌써 보이는 것을 보면 그것은 또 한편 예술의 상징임이 틀림없다.

Stephen의 성적인 모험도 그같은 환영의 추구임은 사창가를 찾아 가는 묘사 중 “He stretched out his arms in the street to hold fast the frail swooning form that eluded him and incited him.” (p.100)라는 말로 확인된다. 다시 말해서 그의 행동은 순전히 본능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환영의 모호한 정체를 확인해 보려는 적극적인 시도이다. 그러므로 앞서의 경우들과는 달리, 이제는 낭만적인 사색을 통해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의 복합적인 뜻이 신비하게 구현되기를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합적인 뜻 중에서 성적인 면을 실제로 증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Stephen은 환영에 대해 지금까지 보여온 낭만적, 신비적 태도를 분식하고 그것이 뜻하는 바를 실제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진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려는 태도는 그의 발전적 변화의 시발점이 된다. 사실상 Stephen의 정신적 발전은 그 모호한 환영 안에 미분화된 상태로 혼효된 여러가지 의미를 하나씩 검증하고 정립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에 대한 증험은 바로 이런 과정의 첫 단계이며, Stephen은 이 단계를 거침으로써 지금까지 신비의 너울에 싸였던 진실을 한가지 체득한다. 그는 창녀의 품 속에서 자신이 “갑자기 강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이 생기는 것”(he had suddenly become strong and fearless and sure of himself. p.101)을 느끼는데 이것은 Mercedes와 만나면 자신에게 일어나리라고 전에 생각했던 바로 그 신비한 전환이다. Stephen은 그같은 자신감이 신비적 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험의 세계로의 통과에 의해 주어지는 것을 성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이다.

Stephen이 성적인 입문을 통해 얻은 것은 분명 그가 바라던 자아인식을 위한 하나의 진전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다행한 죄”(felix culpa)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가정과 학교에서 받은 엄격한 종교적 교육은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자기인식에 대해 성취감보다는 죄의식을 더 느끼게 한다. 특히 피정(避靜) 기간 중 Arnall 신부의 지옥에 관한 끔찍한 설교는 그를 공포에 몰아넣으며 그는 결국 고해를 하고 엄격한 금욕생활로 돌입한다. 오관을 차례로 억제해 나가면서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는 가운데서도, 특히 성적 욕망의 억제에 역점을 두어 여자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그의 태도가 급선회한다.

이것은 그의 정신적 발전에서 그가 또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즉 그가 먼저 번에 그 모호한 환영의 성적인 측면을 증현했다면, 이번에는 성녀적인 측면을 증현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문 이미지를 통해 보았듯이 성은 혼돈스럽지만 거대하고 신비로운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음에 반해, 성처녀에의 헌신은 질서와 율법에 얽매이고 생명력이 고갈된 무미한 생활임이 드러난다. Stephen이 비록 회개하고 엄격한 종교생활에 전념하고 있지만,

그가 경험한 속세의 생활, 그 혼탁하고 잡다하면서도 모든 것을 생성해 내는, 큰 물과 같은 생활을 완전히 버릴 수 없음은 그가 성스러워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결과는 불만스러워지는 사실로 증명된다.

To merge his life in the common tide of other lives was harder for him than any fasting or prayer, and it was his constant failure to do this to his own satisfaction which caused in his soul at last a sensation of spiritual dryness together with a growth of doubts and scruples. (p. 151-2)

그가 고도의 경건성을 견지하려고 하는 동안 깨달은 것은 그러기 위해서 치려야 할 회생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고도의 경건성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자연적인 육신의 쾌락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감각을 마비시키는 고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사소한 방해로도 곧 침해를 받는 것이어서 그는 주위의 하찮은 일에 화증을 내게 되고, 이러한 편협성이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the common tide of other lives)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경건한 생활이 그에게는 아무래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그가 자연스럽고 감각적이며 생성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점은 그가 경건한 생활을 정신적인 고갈과 동일시하며 그 가치에 대해 회의를 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결국 Stephen은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혼탁하고 잡다하지만 정감적이고 활력있는 육신의 삶의 진가를 깨닫게 된 것이다. 다음의 상징적 기술에서 우리는 이같은 Stephen의 내면적 변화를 엿볼 수 있다.

This idea of surrender had a perilous attraction for his mind now that he felt his soul beset once again by the insistent voices of the flesh which began to murmur to him again during his prayers and meditations. It gave him an intense sense of power to know that he could by a single act of consent, in a moment of thought, undo all that he had done. He seemed to feel a flood slowly advancing towards his naked feet and to be waiting for the first faint timid noiseless wavelet to touch his fevered skin. Then, almost at the instant of that touch, almost at the verge of sinful consent, he found himself standing far away from the flood upon a dry shore, saved by a sudden act of the will or a sudden ejaculation: and seeing the silver line of the flood far away and beginning again its slow advance towards his feet, a new thrill of power and satisfaction shook his soul to know that he had not yielded nor undone all. (p. 152)

위의 인용문에서 Stephen이 육체적인 유혹을 억제할 수 있는 그의 의지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받는 인상은 그러한 의지가 확고한 것이 아니라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가 다행스럽게 느끼는 것은 유혹을 감연히 물리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그가 느끼는 떨리는 쾌감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종교적인 성취를 일순간에 무너버릴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것이므로 보면,

그것은 신심의 굳건함보다는 유혹의 강력함을, 나아가 그것에 굴복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볼 때 첫 문장에서 그가 “위험한 매력”을 느끼는 “복종”은 성취녀에 귀의해서 자기의 영혼을 맡긴다는 뜻이 아니라 유혹에 굴복한다는 뜻임이 분명해진다.

이같이 종교적인 경건주의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Stephen의 마음은 역시 물 이미지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행에 가까운 그의 경건한 생활이 “fevered”라는 말로 표현되어 안식보다는 고뇌를, 평정보다는 열로 들뜬 불안을 암시하며, 그렇기 때문에 피안을 뜻해야 할 “a dry shore”가 오히려 메마르고 황량한 느낌을 준다. 반면에, 물은 그러한 번열(煩熱)을 식혀주고 건조한 땅을 적셔 주는 생명의 축복같은 인상을 준다. 또한 “the silver line of the flood”같은 구절에서는 물을 미화하려는 의도까지 보이며, “waiting for the first faint timid noiseless wavelets to touch his fevered skin.”에서는 물을 동경하는 마음이 역력히 드러나 있다. 특히 “beginning again its slow advance towards his feet”는 물의 점요한 추적이 결국은 그를 그 안에 잠기게 하고 말리라는 예감을 준다. 이처럼 물 이미지를 통해서 볼 때 Stephen이 삭막한 금욕주의를 벗어나 희로애락과 변화가 있는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고 말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태의 추이다.

곧 이어서, 성직자가 되라는 Belvedere 학교 교장의 권유를 Stephen이 거절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신부가 되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은 Stephen과 같이 자부심이 강한 소년에게는 매력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실상 바라오던 바였다. 그러나 그런 삭막한 선민의식에 안주하기에는 생애 대한 그의 애착이 이미 너무 깊어 그의 가슴 속에 뿌리박은 것이다. 성직이 그에게 “신비한 지식과 신비한 힘”(secret knowledge and secret power p.157)을 주겠지만, 그림자(shadow)와 해골(skull) 등의 이미지로 점철되어 있는 교장의 얼굴묘사가 암시하듯이 그것은 무미건조하고 “정열이 없는 생활”(passionless life p.160)이다. 문밖까지 교장의 배웅을 받고 나와 헤어지는 장면은 이같은 두 가지 생활의 차이와 Stephen의 선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He held open the heavy hall door and gave his hand as if already to a companion in the spiritual life. Stephen passed out on to the wide platform above the steps and was conscious of the caress of mild evening air. Towards Findlater's church a quartet of young men were striding along with linked arms, swaying their heads and stepping to the agile melody of their leader's concertina. The music passed in an instant, as the first bars of sudden music always did, over the fabrics of his mind, dissolving them painlessly and noiselessly as a sudden wave dissolves the sandbuilt turrets of children. Smiling at the trivial air he raised his eyes to the priest's face and, seeing in it a mirthless reflection of the sunken day, detached his hand slowly which had acquiesced faintly in that companionship. (p.160)

“the heavy hall door”가 주는 무거운 구속과 속박의 느낌은 “the caress of mild evening air”의 자유롭고 쾌적한 느낌과 대조를 이루며, 그것들은 곧 사제의 생활과 세속의 생활에

각각 대응하고 있다. 이보다 더 명확하고 강한 대비는, 기우는 해빛을 무감동하게 반영하고 있는 교장의 얼굴과, 팔장을 끼고 흥겹게 노래부르며 concertina 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지나가는 네 명의 젊은이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젊음과 삶의 기쁨을 표상하는 그들의 노래가 Stephen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사실은 위의 두 길 중에서 그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여기서도 Stephen의 심경은 물 이미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이 세운 모래탑이 반드시 메마른 영적인 생활을 지적한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것이 적어도 그러한 생활을 견지하려고 했던 Stephen의 노력을 암시함은 틀림없다. 모래탑이 물결 앞에 전혀 무력하듯이 그같은 노력은 거대한 생명의 힘 앞에 무산되고 마는 것이다. 조금 전에 Stephen이 금욕생활을 하며 육체의 유혹을 피할 때, 집요하게 그를 추격하던 물결이 이제 드디어 그를 물 속에 잠기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마지막에 그가 교장의 손을 놓는 것은 단순한 악수의 끝남이 아니라 생명을 결한 종교적 금욕생활에 대한 결별이요, 따라서 그의 장래에 대한 결단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그의 결단은 또다시 물에 관한 이미지들로 나타난다.

He crossed the stream of the Tolka and turned his eyes coldly for an instant towards the faded blue shrine of the Blessed Virgin which stood fowlwise on a pole in the middle of a hamshaped encampment of poor cottages. (p.162)

성처녀의 소상이 빛남아 보인다는 사실과 그것에 차가운 시선을 던지는 행동으로 표출된 성적생활에 대한 Stephen의 태도는 다리를 건너는 행동으로써 더욱 분명해진다. 다리를 건너는 것은 결단의 증거인데 이와 관련된 물 이미지는 그 결단의 방향을 암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같은 암시는 4장의 마지막 section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 나온다. 성직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스스로 묻고 난 다음, Stephen은 그것에 대해 아무 대답없이 Dollymount에서 바다쪽으로 향한다. 바다로 가는 도중 다리위에서 바다쪽으로부터 오는 christian brothers들과 엇갈린다. christian brothers는 그 명칭이 뜻하는 바나 그들의 행색과 행동으로 보아도 굳은 신심과 엄한 계율을 연상시키므로, 이들과 반대 방향인 바다를 향해 다리를 건너는 것은 위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되는 것이다. 즉 생명을 결한 종교적 세계와는 반대로 바다는 거대하고 신비한 생명, 육욕과 정열과 집다한 변화와 생명이 있는 세상이므로 그는 바다를 택한 것이다.

이러한 경위를 통해 Stephen이 성직을 버리고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단순한 속세로의 복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2장에서 그가 성을 통해서 세속적인 삶의 한 극단을 경험했고 3장에서 그와 반대되는 종교적인 금욕수행을 했다면 이제 그는 이 두 극단을 지양하는 제삼의 길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로써 그는 그의 정신적 발전의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같은 그의 성장은 우선 극단적인 사고의 습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그가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그가 바다가 함축하는 바 원초적이고 잡다한 삶의 형태만을 전적으로 추구하거나 이상화해서가 아니다. 실은 바다는 아직도 “차겁고 인간이하의 냄새”(cold inhuman adour p.167)로 그를 몹서리치게 할만큼 그에게 혐오스런 것이다. 바다에서 수영하는 친구들에 대한 그의 반응은 이점을 잘 말해준다.

The mere sight of that medley of wet nakedness chilled him to the bone. Their bodies, corpsewhite or suffused with a pallid golden light or rawly tanned by the suns, gleamed with the wet of the sea. Their divingstone, poised on its rude supports and rocking under their plunges, and the roughhewn stones of the sloping breakwater over which they scrambled in their horseplay, gleamed with cold wet lustre. (p.168)

“nakedness”나 “bodies”같은 말들은 물이 갖고 있는 육감적인 면을 다시 상기시키며 또 “rawly”, “rude”, “rough-hewn” 등의 수식어는 물의 원초적이고 조악한 특성을 드러내 준다. 이러한 바다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친구들의 행동은 원초적이고 육감적인 조악한 생애의 탐닉으로 그에게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이다. 그러나 물이 지금 그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은 2장에서와 같이 그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바깥 세상으로 여겨서가 아니고, 또 3장에서와 같이 종교적인 가치관에 의해 그것이 불선(不善)하고 불결한 것으로 생각돼서도 아니며, 이제는 그의 예술가적인 안목에 그것이 순화되지 않고 세련되지 못한 조악한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물이 상징하는 지상의 삶은 그안에 안주해도 좋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것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모든 창조와 생성의 바탕이고 그래서 예술도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편 종교적인 생활에 대한 Stephen의 태도도 간단히 전면적인 거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는 Satan의 “Non serviam”을 되뇌이면서 신앙을 부정하지만, Cranly가 말하듯이 “[그의] 마음은 [그가] 믿지 않는 종교로 폭 젖어 있는 것이다.”([your] mind is supersaturated with the religion in which [you] say [you] disbelieve. p.240). 그가 버린 것은 영적인 생활 자체가 아니라 생명을 거부하는, 제도화되고 고루한 아일랜드의 천주교 사제생활이다. 사실은, 성녀애의 헌신이 이제 예술을 위한 정신적인 기율과 희생, 그리고 헌신으로 바뀐 것 뿐이다. 이같은 기율과 희생과 헌신은 다름 아닌 사제생활의 특성이며, Stephen은 천주교의 사제가 되는 대신 “경험이라는 일상의 빵을 영생을 가진 빛나는 성체로 바꾸는 영원한 상상력의 사제”(a priest of eternal imagination, transmuting the daily bread of experience into the radiant body of everliving life. p.221)가 된 것이다.

이로써 일찌기 Stephen을 혼란시켰던 환영의 이중적 성격들은 그의 예술의 필수적인 요소들로 분화됨으로써 그 뜻이 정리된다. 즉 그를 유혹하던 요녀는 물 이미지를 통해 원초적이고 잡다하나 생성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또 그에게 기율과 희생과 헌신을 요구했던 성

녀는 그가 구도자적인 수련을 쌓는 예술가로서 지향해야 할 미의 세계로, 각각 그 의미가 정리된 것이다.

Stephen이 발견한 제삼의 길이란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 연결의 수단은 물론 예술이다. 그런데 예술은 Stephen에게 있어서 “대지의 빛기 힘든 질료로부터 새롭고, 비상하며, 잡을 수 없는, 불멸의 존재를 버리어 내는 것이요”(forging...out of the sluggish matter of the earth a new soaring impalpable imperishable being p.169), 5장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듯이 “조야한 대지로부터 또는 대지가 생성해 내는 것으로부터 미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다시 짜내는 것”(to express, to press out again, from the gross earth or what it brings forth...an image of the beauty p.207)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 물로 상징되어 온 지상의 삶은 예술의 질료가 됨으로써 예술을 통해 미의 세계와 연결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 안에 안주할 것은 못되되 그렇다고 포기되거나 초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으로 세련 내지 승화해야 할 예술의 바탕인 것이다.

이처럼 지상의 삶으로 영원한 미를 창조하는 예술은 이제 비상(飛翔)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가 지향해야 할 예술의 의미가 확실해지자 “그가 봉사하도록 태어난 목적, 안개같이 몽롱하던 그의 유년시절과 소년시절을 통해 그가 내내 추구해 온 바 그 목적”(the end he had been born to serve and had been following through the mists of childhood and boyhood p.169)이 천공을 나르는 Daedalus의 모습으로 예시(豫示)되는 것이다. 이 비상의 이미지가 지상의 삶의 초극보다는 그것과 미의 세계와의 연관을 함축함은 비상의 도정이 물과 태양 사이라는 점과, 물에서 멀리 떠나 태양에 너무 접근했을 때에 추락하여 자멸한 Icarus의 신화가 암시해 준다.

이런 예술에 대한 Stephen의 새로운 인식은 4장 끝에서 물 속을 거니는 소녀를 만남으로써 더욱 확실해 진다.

A girl stood before him in midstream, alone and still, gazing out to sea. She seemed like one whom magic had changed into the likeness of a strange and beautiful seabird. Her long slender bare legs were delicate as a crane's and pure save where an emerald trail of seaweed had fashioned itself as a sign upon the flesh. Her thighs, fuller and soft-hued as ivory, were bared almost to the hips where the white fringes of her drawers were like featherings of soft white down. Her slate-blue skirts were kilted boldly about her waist and dovetailed behind her. Her bosom was as a bird's soft and slight, slight and soft as the breast of some dark-plumaged dove. But her long fair hair was girlish: and girlish, and touched with the wonder of mortal beauty, her face.

She was alone and still, gazing out to sea; and when she felt his presence and the worship of his eyes her eyes turned to him in quiet sufferance of his gaze, without shame or wantonness. Long, long she suffered his gaze and then quietly withdrew her eyes from his and bent them towards the stream, gently stirring the water with her foot hither and thither. The first faint

noise of gently moving water broke the silence, low and faint and whispering, faint as the bells of sleep; hither and thither, hither and thither: and a faint flame trembled on her cheek. (p. 171)

바닷새를 닮은 소녀가 물 속을 거니는 모습은 앞서 토의된 주요 이미지들인 물과 여인과 비상을 다 포함함으로써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을 요약하고 있다. 즉 갈등의 요소들을 조화롭게 구현하고 있는 여인이 새의 모습을 하고 물에서부터 비상하려 하는 이 장면은 Stephen 이 지향해야 할 예술, 곧 지상의 삶과 미의 세계의 연결을 완벽하게 표상하고 있다.

실제로 자세히 보면 위의 인용문에는 몇 개의 상반된 요소가 결합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녀에 대한 묘사는 대개 새이미지로 이어져서 성적이 함축이 소실되고 있지만, 그래도 “her long slender bare legs,” “thighs, full and soft-hued,” “bared almost to the hips,” 등 상당히 육감적인, 또는 육감적일 수 있는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 Stephen의 “경배”의 눈길을 “부끄럽거나 부정한 기색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더라도 그 소녀는 성취녀의 인상을 길게 풍기며, 특히 상아빛 대퇴부는 “Tower of Ivory”를 연상시키지만, 그녀에게는 분명 범상한 “소녀다운” 일면과 “인간의 아름다움”이 함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비상을 상징하는 새의 형상을 했으면서도 지금 물 속을 거닐고 있는 사실과, 그녀의 청순한 피부 위에 “무슨 징표 모양으로 붙어 있는 에메랄드색의 긴 바다말”은 그녀와 물과의 유대를 암시해 준다. 특히 그녀가 발로 짓고 있는 물은 “꿈결 속에 들리는 종소리 같이 낮은 소리를 내는” 쾌감을 주는 것으로, 이제는 물이 반드시 불쾌한 대상이 아니라 유쾌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서들은 예술이 지상의 삶의 포기가 아니라 그것과 이상적인 미의 세계를 연결하는 창조적인 작업임이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 대목이 Stephen에게 예술의 길을 시사해 주고 있음은 틀림없으나 그것은 단지 하나의 비전이요, 개략적인 암시에 불과하다. 5장에서 Lynch에게 미에 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When we come to the phenomena of artistic conception, artistic gestation and artistic reproduction I require a new terminology and a new personal experience. (p. 209)”라고 하는 말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개략적인 이론체계가 아닌 구체적인 창작과정은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정립해 나가야 할 미래의 작업이다. 그런데 “To live, to err, to fall, to triumph, to recreate life out of life! p. 172)”라는 그의 외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외로운 투쟁과 좌절과 승리가 이루어질 터전은 실수하고 타락하며 살아야 하는 지상의 삶이다. 이점은 새모양의 소녀가 비상하려는 자세로 바다를 바라다 보는 데에, 또 자신의 운명을 깨달은 Stephen이 “바다를 향해 흥분하여 노래를 부르며”(singing wildly to the sea p. 172) 바다로 걸어 나가는 데에 암시되어 있다. 바다는 그의 창작의 터전이며 동시에 미래인 것이다. 여기서 바다는 지금까지의 뜻에다 신비한 미지의 세계, 가능성을 지닌 미래의 뜻을 더 함축하게 된다. 이 나중의 뜻은 5장의 마지막에서 더욱 확연해 진다.

16 April: Away! Away!

The spell of arms and voices: the white arms of roads, their promise of close embraces and the black arms of tall ships that stand against the moon, their tale of distant nations. They are held out to say: We are alone. Come. And the voices say with them: We are your kinsmen. And the air is thick with their company as they call to me, their kinsman, making ready to go, shaking the wings of their exultant and terrible youth. (p. 252)

아이랜드를 떠나기로 작정한 Stephen에게 손짓하는 큰 배를 통해 우리는 미지의 나라로 그를 인도할 바다를 또 다시 만난다. 그런데 그 바다는 이제 그에게 거부감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감을 주는 것이며, 그와 친연관계를 속삭이는 소리들과 같이 그와 친화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III.

지금까지 분석해 본 바와 같이, 이 작품에서 물 이미지는 점차로 그 함축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즉 처음에는 괴로운 학교생활이던 것이 성적인 의미가 가미되자 원초적인 생명력으로, 그 다음에는 금욕적인 수도생활에 반대되는 열정적이고 잡다한 속세의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지의 가능성의 세계로 그 의미의 폭이 넓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 자체의 의미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물은 본래 이 모든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단지 그 뜻을 감지하는 Stephen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같은 의미의 변화는 Stephen의 인생에 대한 인식이 깊고 넓어가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것은 그의 정신적 발전의 지표가 된다.

이에 덧붙여 말할 수 있는 것을 물에 대한 Stephen의 태도도 바뀌어 가고 있는 점이다. 바깥 세상이 두렵고 괴로울 때는 물에 대해서는 거부적이고 혐오감을 느끼다가, 성을 느끼면서는 그에 대한 호오(好惡)가 갈등을 빚더니, 종교적인 금욕생활에 환멸을 느낄 때는 그것을 동경하고, 예술의 소명을 인식했을 때에는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처럼 삶에 대하여 혐오와 이상화 사이를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 두 극단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삶의 복잡적이고 잡다한 실상을 온전하게 받아 들이는 과정도 그의 정신적 성장과 대응하고 있다.

물 이미지를 통해 이 소설을 볼 때 새롭게 인식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의 긍정일 것이다. Stephen은 구도자처럼 예술에 정진하기 위하여 가정과 종교와 국가를 버리고 스스로 유배의 길을 떠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삶은 예술을 위해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Icarus의 신화는 미의 세계로만의 접근도, 현실 속으로의 침잠도 모두 불허하고 있다. 예술이라는 비상은 삶을 포기하거나 초극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길료를 심미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예술에 있어서 현실적 삶의

중요성은 Joyce 자신이 다른 곳에서도 피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예술이 한 순간도 Dublin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 준다.⁶⁾

그러므로 가정과 종교와 국가의 표상인 아일랜드를 떠난다는 것은, “나의 영혼의 대장간에서 내 민족의 창조되지 않은 마음을 버려 내겠다.”(to forge in the smithy of my soul the uncreated conscience of my race p.253)는 말에 나타나듯이, 아일랜드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이같이 일견 모순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술가의 초상”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으로서의 예술가”(the artist as a young man)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는 이제 막 예술의 길을 예시받고 그것을 위해 구도자적인 정진을 결심한 젊은이이다. 그는 지금 새로운 종교의 사제가 되어 신념과 정열에 불타고 있는 뜻나기인 것이다. 그 소명의식과 종교적 정열과 젊은이다운 낭만적 성향이 젊은 그로 하여금 가장 극적이고(이것은 모순을 내포할수록 효과적이다.) 헌신적인(애착이 가장 큰 것을 버려야 효과적이다.)행동을 결행하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행동에는 선택받은 젊은이의 자만과 과장이 섞여 있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그에게 지금 가장 절박한 당위는 예술을 위하여 일단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와 가장 밀착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로 보고 예술로 재창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험오나 포기의 표시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지상의 삶에 묻혀 맹목적으로 그것이 집착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오히려 높은 차원의, 거대한 애정의 표시인 것이다.

6) 예술과 삶에 관한 Joyce의 견해에 관해서는 James Joyce, “Drama and Life,” in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 Ell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9), pp. 38-46 참조.

《Abstract》

The Water Imagery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Myong-yol Kim

The first section of *A Portrait* is a mosaic of various symbols, images, and motifs which are to play important roles in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the major themes of the novel. Significantly, the water image appears in the section, and indeed, it recurs throughout the novel whenever Stephen undergoes a critical experience in his growth.

Water signifies life in its totality, that is, life with its multitudinousness and squalor, its passion and agony, and its strangeness and mystery. But of course, Stephen does not comprehend such complicated implication of water at the beginning. Water seems to him at first merely as something squalid and unpleasant, then as something related to sensuality, and then as something vast, irresistably powerful, and inexhaustibly rich in potentiality. This progressive apprehension of diverse aspects of water reveals, in fact, his progressive comprehension of the meaning of life.

A similar process is also discernible in his changing attitudes to water. He is at first repulsed by it, then idealizes it, and finally accepts it as it is, with its antithetical qualities. This dialectical process also reflects his spiritual development.